

numbers 제 109호



주요 내용

2021.08.27

- 이번 주 주제 : [2021년 상반기 한국 교회 코로나19 변화 추적 조사2(목회자 대상)]
 -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 전체의 20%!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코로나19와 관련한 실직 경험, '40대'가 가장 높아!
 - [OECD 국가의 갈등 지수] 한국 갈등 지수, OECD 30개 회원국 중 3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 전체의 20%!

지난주 개신교인의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제대로 못가는 답답한 마음에 코로나 종식 후 예전과 동일하게 주일 현장 예배에 출석하겠다는 응답이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물어보면, 대체로 성도들보다는 좀 더 비관적이다. 교인이 감소할 것 같다는 인식이 1년 전에는 49%였는데 지금은 57%로 늘어났고, 예상 감소폭도 1년 전 20%에서 현재 27%로 증가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목회자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한편으로, 목회자들은 시무 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교인이 전체 교인의 20% 정도 된다고 응답했다. 이 20%는 온라인으로 갔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조사 통계는 현재를 읽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09호는 지난주에 이어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목회자편을 정리해 보았다. 이 보고서가 한국 교회가 올 하반기와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제목 :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목회자 대상)
- 조사 대상 : 목회자(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 담임목사)
- 표본 추출 방법 : 교단 교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교회 규모별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891명(유효표본)
-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일자 : 2021년 6월 17일 ~ 6월 30일(14일간)
- 조사 의뢰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 목회데이터연구소 /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 발표일 : 2021년 8월 13일
- Note : 본 조사는 수도권 방역 4단계 조치(2021.07.18.~) 이전인 예배 참석 20%이내 조건 시점에서 조사하였음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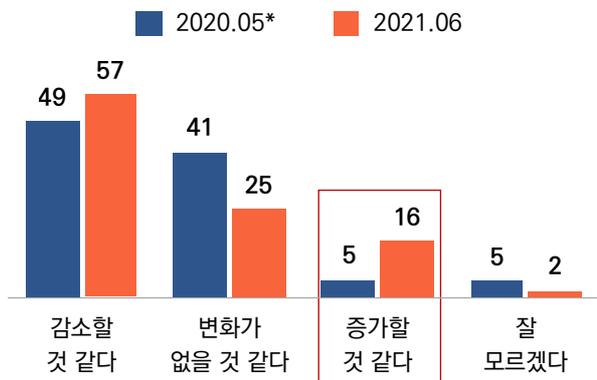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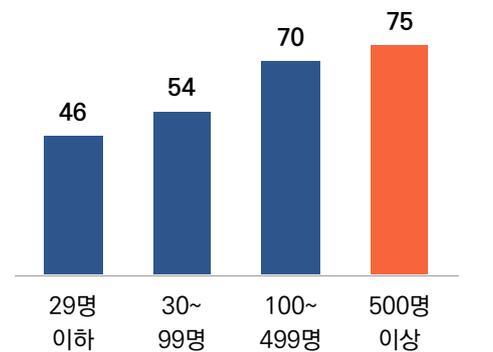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교인수 증가를 예상하는 교회 비율 늘어나!

-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예상에 대해 절반 이상(57%)의 목회자가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조사 결과 대비 8%p 더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도 11%p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1년을 거치면서 자신감 있는 교회와 더 나빠지는 교회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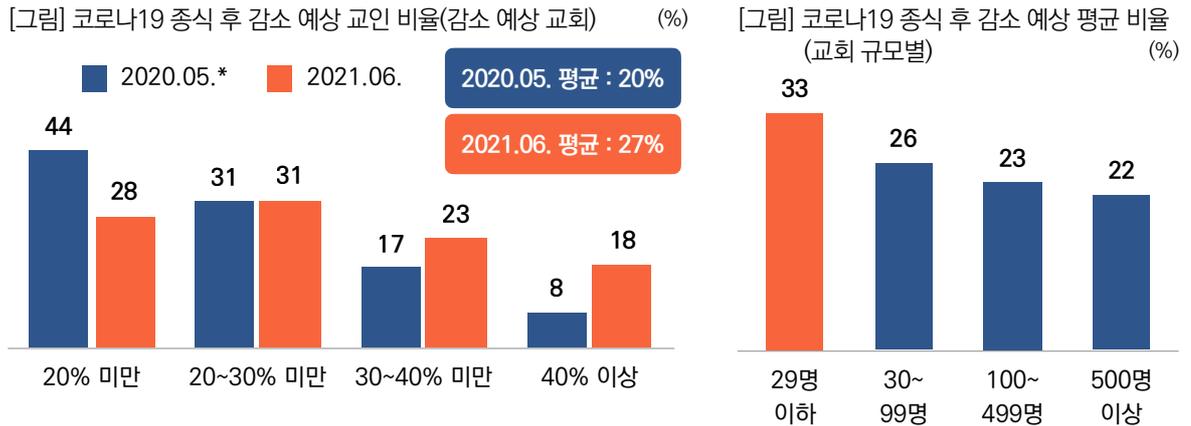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감소할 것 같다'(교회 규모별) (%)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전국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수 예상 감소폭(감소 예상 교회),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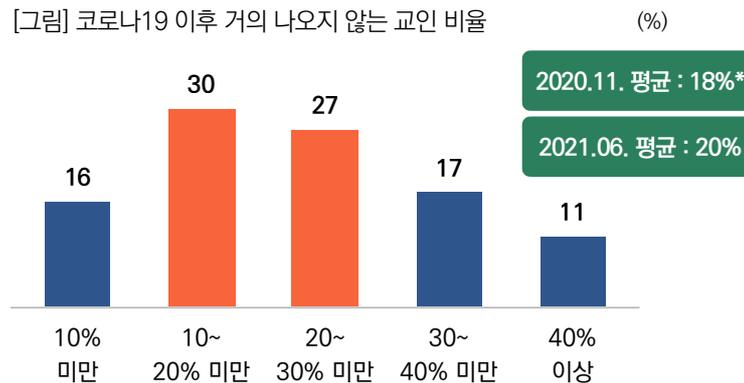
- 교인 수 감소를 응답한 목회자에게 코로나 이전보다 몇 %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은 결과, 평균 2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조사 때 20%보다 7%p 더 높은 수치이다.
- 앞서 살펴본 교인 수 변화 예상에서 '감소할 것' 응답률이 대형 교회일수록 더 높았는데, 감소 예상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감소폭은 오히려 소형 교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소형 교회의 경우 감소 안되고 정체/증가하는 교회와 크게 감소하는 교회 등 소형 교회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다.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전국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 20%로 5명 중 1명꼴

- 코로나19 이전 교회에 매주 출석하던 교인 중, 코로나19 이후 거의 나오지 않는 교인이 전체 중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평균 20%로 응답돼, 코로나 이전 매주 출석 교인 5명 중 1명은 현재까지 거의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평균 18%였는데, 코로나 이후 거의 출석하지 않는 교인 비율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 출처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0.11)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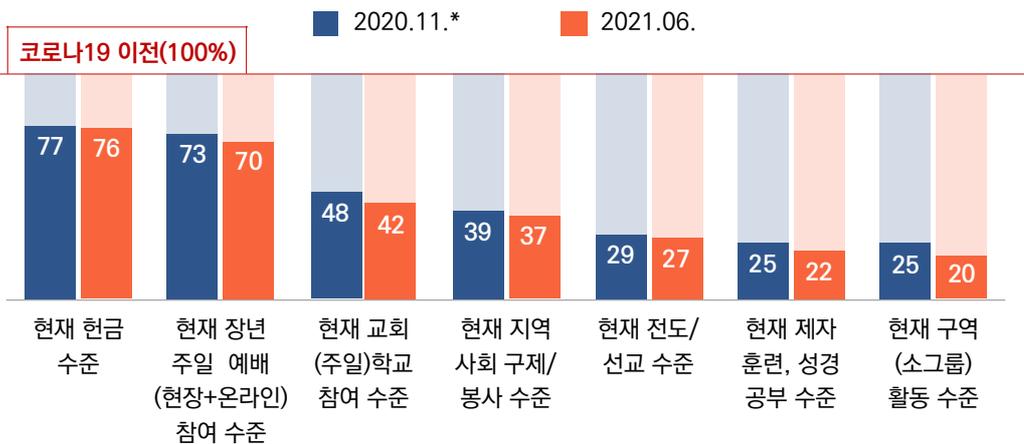
2



2021년 6월 기준 주일 예배 장년 참여율(온라인 예배 포함), 코로나 이전 대비 70%

- 코로나19 이전 사역 정도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사역 정도를 물어보았다. 작년 말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사역 정도가 하락했는데, 장년의 경우 코로나 이전 대비 70%의 주일 예배 참여율(온라인 예배 포함)을 보였다. 교회 학교의 경우 작년말 48%에서 42%로 더 줄어들어 다음 세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사역 정도(전체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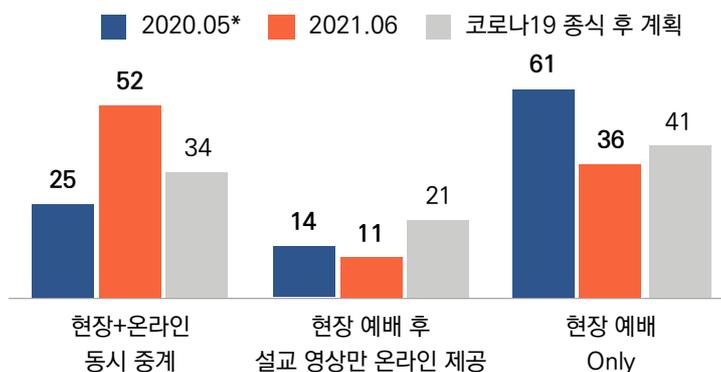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연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0.11)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 주일예배의 ‘현장+온라인’ 동시 중계, 현재 52%→코로나 종식 후(계획) 34%

- 현재 주일예배를 ‘현장+온라인 동시중계’ 하는 교회는 전체 5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5월 조사 대비 현장+온라인 동시 중계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해 1년 사이에 온라인 활용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아직도 36%의 교회는 온라인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일예배의 실시간 중계 비율은 현재 52%에서 코로나 종식 후(계획) 3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온라인 없이 현장예배만 드리겠다는 교회가 무려 41%에 달했다.

[그림] 현 주일예배 운영 형태 (%)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전국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3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 '다음세대 교육 문제'와 '출석 교인 수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다음세대 교육 문제'(24)와 '출석 교인 수 감소'(23%)가 높게 지적돼, 목회자들에게 이 두가지 어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대비 '출석 교인 수 감소' 응답률의 증가폭(+8%p)이 크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 (%)



* 자료 출처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0.11)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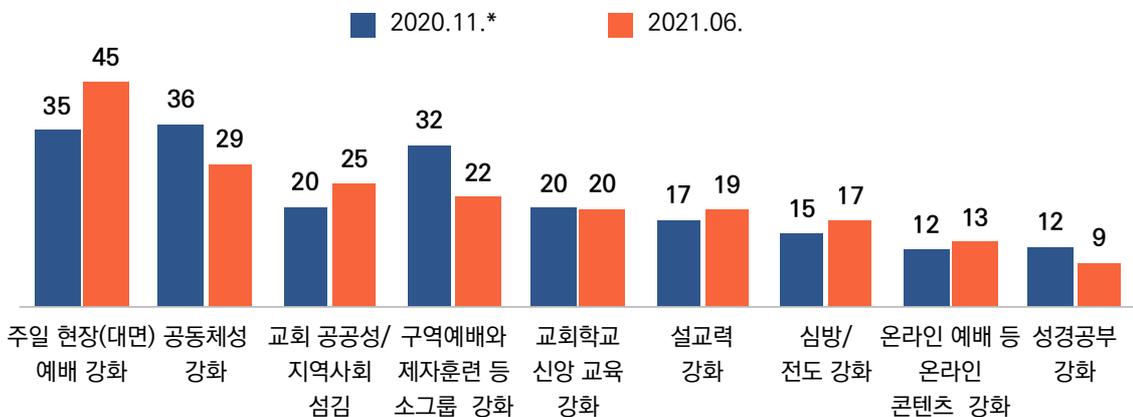
4



코로나19 종식 후 목회 중점 사항, 1위 '주일 현장 예배 강화'

- 코로나19 종식 후 목회 중점 사항(1+2순위)으로는 '주일 현장(대면) 예배 강화'가 가장 높게 지적됐는데,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10%p 증가하였다. 이는 목회자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리는 현실에서 종식 후 현장 예배 강화를 가장 절실한 목회 중점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역예배와 제자훈련 등 소그룹 강화'는 큰 폭(10%p) 감소했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목회 중점 사항(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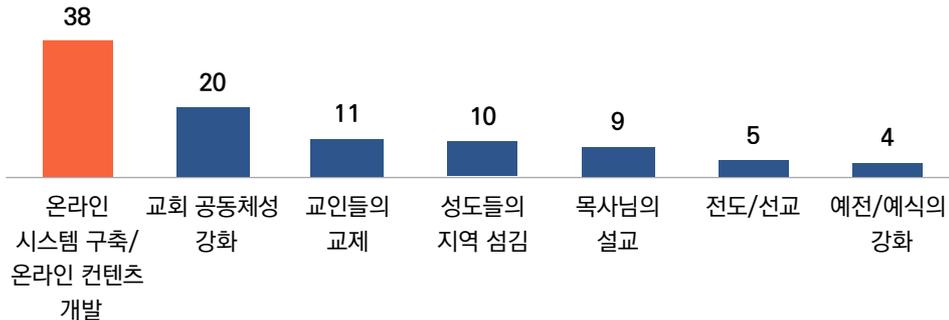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0.11)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의 중점사항 관련, 목회자와 성도 간에 큰 인식 차이를 보여!

- 앞에서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종식 후 목회 중점 사항으로 ‘주일 현장 예배’를 1위로 지적했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중점 강화 사항을 질문한 결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가장 높게 응답해 목회자와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중점 강화 사항(개신교인) (%)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 보고서(개신교인 대상)', 2021.07.20(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6.1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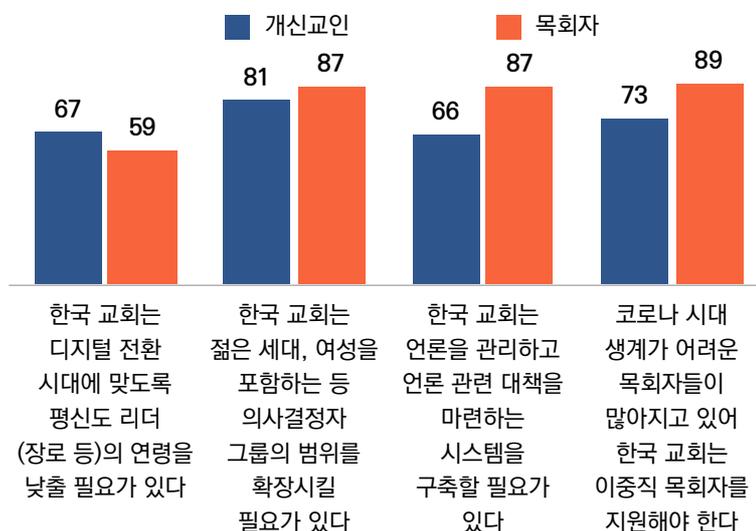
5



한국 교회, ‘젊은층/ 여성 등 의사 결정자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 있다’ 개신교인 81%, 목회자 87%

-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한국교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젊은층/여성 등 한국 교회 의사 결정자 그룹의 범위 확장 필요성’, ‘언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 ‘이중직 목회자 지원’ 등에 대해 두 그룹 모두 동의율이 매우 높는데, 특히 목회자 그룹이 개신교인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한편, ‘평신도 리더의 연령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의 세가지 이슈보다 낮은 동의율을 보였지만 그래도 두 그룹 모두 60% 안팎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한국 교회 주요 이슈(개신교인 vs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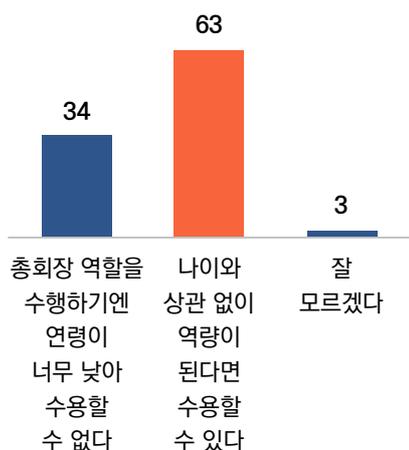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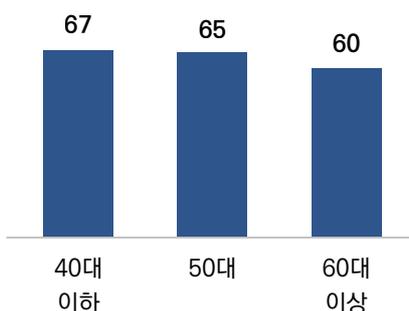
30~40대 총회장, '역량이 되면 수용하겠다' 63%

- 소속 교단에서 30~40대 연령의 총회장이 나온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은 결과, 5명 중 3명 이상(63%)이 '나이와 상관 없이 역량이 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대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았다.

[그림] 30~40대 총회장 수용 의사 (%)



[그림] '30~40대 총회장 나이와 상관 없이 역량이 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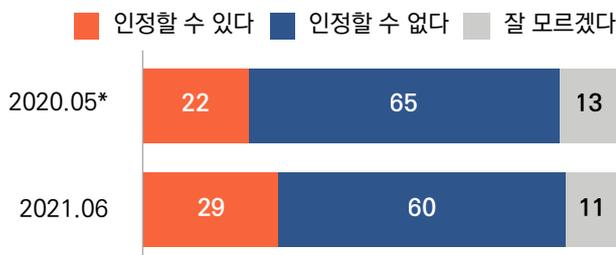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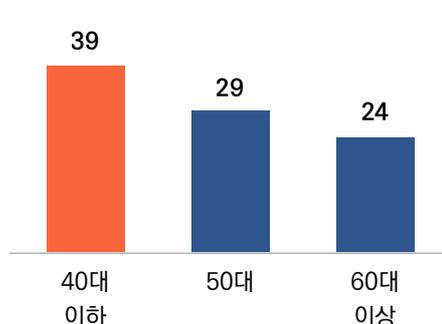
목회자, 온라인 교회 '인정할 수 있다', 1년 사이 22%에서 29%로 증가!

- 만약 온라인 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공교회로 인정하겠는지 물었더니, 목회자의 29%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6%p 증가한 수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수용도가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의견 (%)



[그림] 온라인 교회 '인정할 수 있다' (연령별, 2021.06) (%)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전국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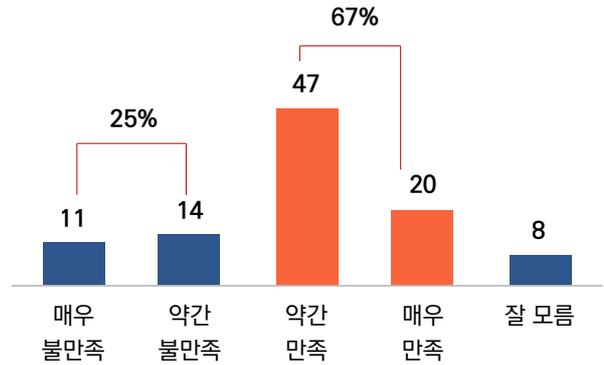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찬식 했다’ 8%

- 신학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찬식을 진행한 경우는 전체 교회의 8%로 10개 교회 중 1개 교회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온라인 성찬식을 행한 목회자의 경우 만족도는 6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림] 온라인 성찬식 경험



[그림]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온라인 성찬식 경험 목회자) (%)



2021년 한국 교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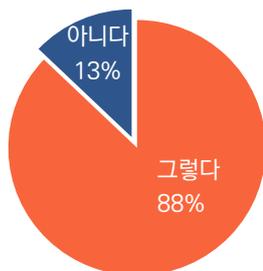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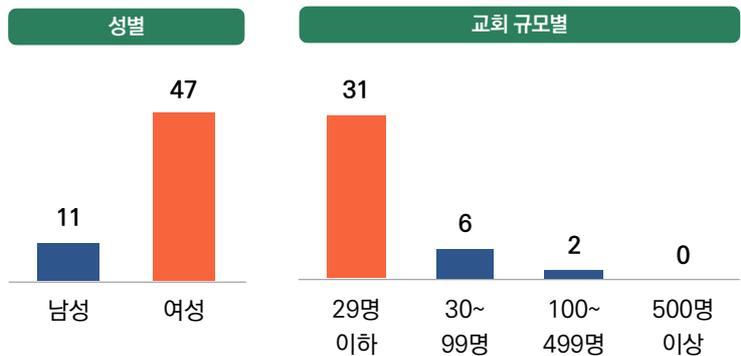
29명 이하 초소형 교회 목회자, '사례비 받지 않는다' 31%

- 목회자(담임목사) 중 현재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례비를 받지 않은 목회자는 29명 이하 초소형 교회(31%), 교회 설립 연한이 짧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 특히 여성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7%)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표본수가 49명임에 유의할 것).

[그림] 사례비 수급 여부



[그림] '사례비 받지 않는다' 비율(성별,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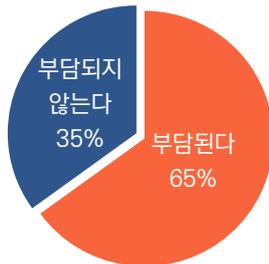
● 한국 교회의 절반가량(47%), ‘현재 부채 갖고 있다’

- 전체 교회 중 절반 가까운 47%의 교회가 현재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 2021년 올해 교회 예산 변화를 질문한 결과, ‘작년보다 증가’ 11%, ‘작년보다 감소’ 42%, ‘작년과 비슷’ 47%로 5개 교회 중 2개 교회가 작년 대비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이 증가됐다는 응답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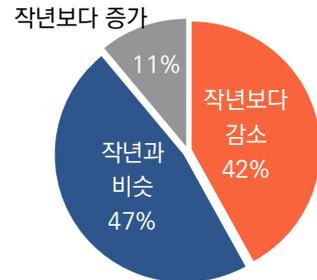
[그림] 교회 부채 유무



[그림] 부채 부담 정도*



[그림] 올해 교회 예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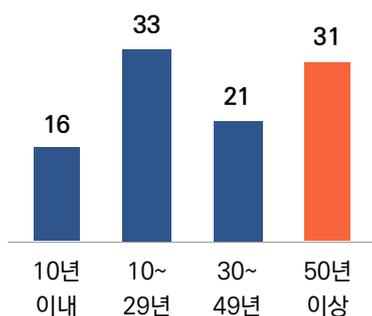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별로+전혀'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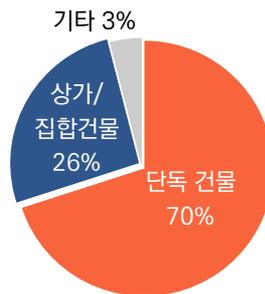
● 전체 교회 중 50년 이상 된 교회, 31% 차지!

- 교회 설립 연수를 살펴보면, 50년 이상 반세기가 넘은 교회가 전체의 31%가 되며, 10년 이내 설립한 교회는 16%로 나타났다.
- 교회 건물 형태는 단독건물인 경우가 70%였고, 상가/집합 건물 비율은 26%로 4개 중 1개 꼴이었다.
- 교회 임대 여부별로는 4개 교회 중 3개 교회(76%)가 직접 소유 형태를 보였고, 전월세 비율은 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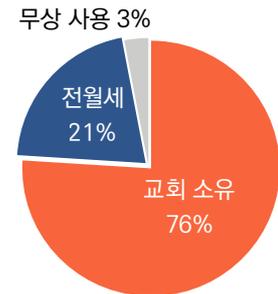
[그림] 시무 교회 설립 연수



[그림] 교회 건물 구분



[그림] 교회 임대 여부





시사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19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에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받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파장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 내면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학생들은 기형적인 학교 생활로 인해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넘버즈 90호)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불운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대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 국민의 80%가 접종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 방역정책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즉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내년부터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교회도 적어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배와 집회 그리고 모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번 넘버즈 109호를 보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목회자가 57%인데 이는 2020년 5월과 비교해서 8%p 증가한 결과이다.(3쪽) 또 예상되는 감소 비율(감소 예상 목회자)이 2020년 5월에는 평균 20%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7%로 늘어났다.(4쪽)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해 교인 수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이 늘어난 것은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출석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그리고 아예 교회를 이탈하는 교인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회복시키려는 생각이 강하다(6쪽). 성도들의 교회 출석을 위해 온라인 동시 중계를 끊고 현장 예배만 드리는 것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5쪽). 현장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예배 기획을 잘해서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고 성도들을 목회자가 심방하거나 구역 등의 조직을 통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성도들이 목회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7쪽). 성도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처방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도들의 생각은 비단 코로나19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4차산업 시대의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다. 아마도 멀지 않아 혼자 집에서 예배드릴 때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 메타버스 예배를 드릴 날도 올 것이다. Uncontact 즉 비대면이라는 현상은 코로나라는 일시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 변화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의 교인이 보이지 않는 지금(4쪽)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과제는 코로나19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변신으로 두는 게 더 지혜롭다. 이번 넘버즈에서 보았듯이 현장 예배 강화, 교회 리더 그룹의 연령을 낮추고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 소그룹 등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 온라인 예배자를 위한 차별화된 온라인 예배 Format 개발, 개신교인 전체적인 신앙수준 강화 등등 다양한 과제를 모두 검토해서 그 가운데 적절한 과제를 선정해서 교회의 전면적인 자성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대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교회는 이 변화에 주시하고 스스로 총체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코로나19 이후 관련한 실직 경험, '40대'가 가장 높아!
2. [OECD 국가의 갈등 지수] 한국 갈등 지수, OECD 30개 회원국 중 3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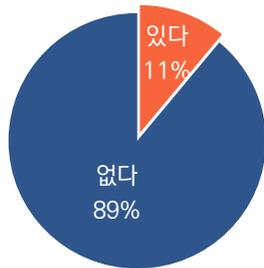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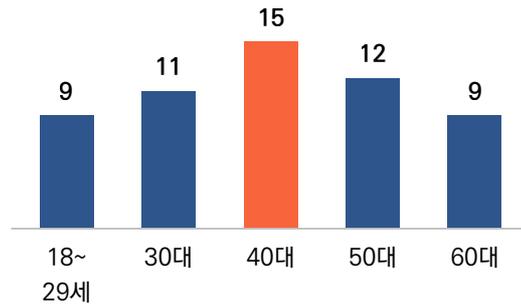
코로나19와 관련한 실직 경험, '40대'가 가장 높아!

-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1월 이후 코로나와 관련해 실직 경험한 사람은 11%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실직 경험을 보인 연령대는 '40대'로 15%였다. 산업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인 '40대 층'에서 코로나 관련한 실직 경험률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실직 경험



[그림] 연령별 실직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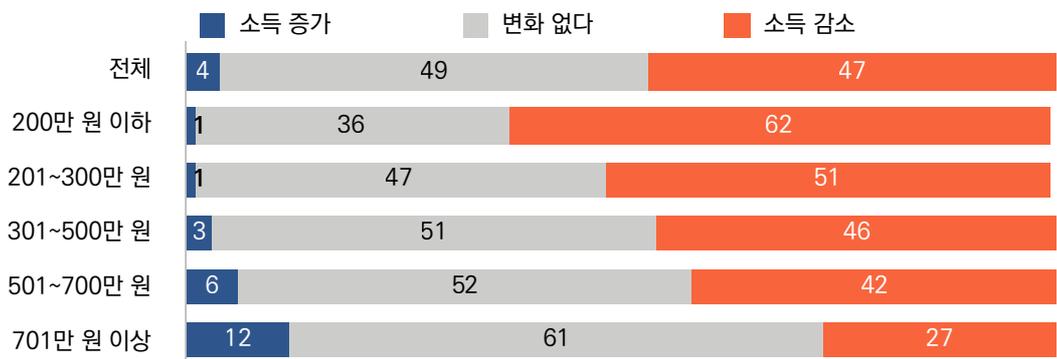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SBS, 'SBS 코로나 기획 여론조사', 2021.08.18(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유무선 전화면접, 2021.07.14.-15)

●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소득의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 4%, '감소했다' 47%로 감소했다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 특히 월 가구 소득별로 '감소했다' 응답률을 살펴보면, 최하위층인 '2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62%인 반면, 최상위층인 701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27%로, 하위층의 소득 감소 비율이 매우 컸다.
- 반면 소득 증가 응답률은 '200만원 이하' 계층은 1%, '701만원 이상' 계층은 12%로 상위층 그룹에서 소득 증가율이 높아,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 증감(가구 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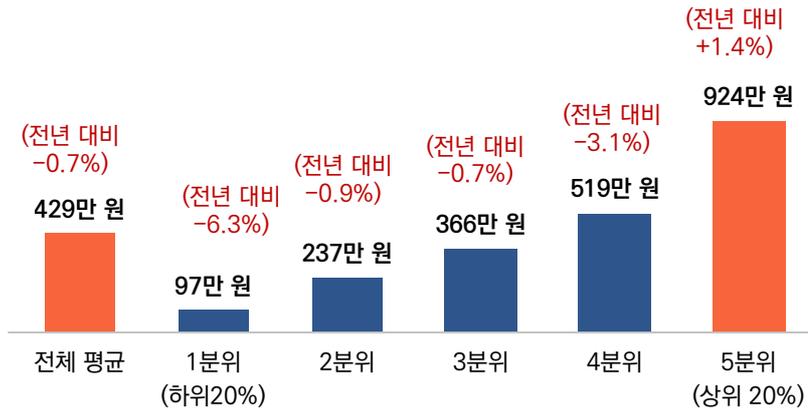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SBS, 'SBS 코로나 기획 여론조사', 2021.08.18(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유무선 전화면접, 2021.07.14.-15)

● 2021년 2분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득 상위 20%’ 계층만 소득 증가

-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분기에 소득이 증가한 층은 ‘소득 상위 20%’(1.4% 증가) 계층이 유일했고, 나머지 소득 계층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추세이다.

[그림] 2021년 2분기 월 평균 가구 소득 증감율(소득 구간 별)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08.19.

2. OECD 국가의 갈등 지수



한국 갈등 지수, OECD 30개 회원국 중 3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정치/경제/사회 분야 갈등 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3번째로 높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나타났다.
-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사회 분야'는 2위, '경제 분야'는 3위, '정치 분야'는 4위로, 세 분야 모두 갈등 지수가 매우 높았다.

[그림] OECD 30개 회원국 중 갈등 지수(종합)

국가	갈등지수	국가	갈등지수	국가	갈등지수
멕시코	69.0	포르투갈	39.1	벨기에	27.3
이스라엘	56.5	이탈리아	37.9	프랑스	25.8
한국	55.1	호주	37.4	체코	24.1
라트비아	50.1	아일랜드	37.3	폴란드	23.4
일본	46.6	에스토니아	37.2	네덜란드	23.2
미국	43.5	캐나다	31.1	덴마크	18.3
뉴질랜드	43.1	헝가리	30.3	노르웨이	17.9
영국	41.4	독일	29.8	슬로바키아	17.5
그리스	40.6	오스트리아	28.5	스웨덴	15.7
스페인	39.5	스위스	27.9	핀란드	13.1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분야별 갈등 지수 순위

- 사회 분야 갈등 지수 : 2위
- 경제 분야 갈등 지수 : 3위
- 정치 분야 갈등 지수 : 4위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2021.08.19

●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 30개 국 중 27위로 매우 낮아!

- 앞에서 한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분석 결과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는 30개국 중 27번째(46점)로 매우 낮아, 갈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한국의 갈등 지수는 높은 반면, 그에 따른 관리 역량은 낮았는데, 이는 국가의 성장과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한국 교회가 이 점을 주목하여 집단 간 갈등 요인을 낮추는 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림] OECD 회원국별 갈등 관리 지수

국가	갈등 관리 지수	국가	갈등 관리 지수	국가	갈등 관리 지수
핀란드	95.40	벨기에	80.03	스페인	56.27
덴마크	91.66	영국	78.91	체코	52.00
노르웨이	90.71	스위스	78.46	폴란드	50.98
스웨덴	89.41	호주	75.75	라트비아	50.43
네덜란드	85.24	일본	74.65	슬로바키아	49.51
뉴질랜드	84.00	미국	71.69	이탈리아	48.21
독일	82.57	에스토니아	67.68	한국	46.18
오스트리아	82.05	이스라엘	66.13	헝가리	42.80
프랑스	81.22	아일랜드	64.26	그리스	31.70
캐나다	80.44	포르투갈	60.79	멕시코	3.31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2021.08.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62호\(2021년 8월 4주\) - 경제 전망, 재테크 방법, 양대 정당 대표 평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3호\(2021년 8월 4주\) - 대통령 국정 평가, 대선후보 적합도 등](#)

사회
일반

[똑 똑 “문 좀 열어보세요”… 코로나속 소외이웃 챙기는 동네천사들](#)

동아일보_2021.08.21.

[서울 '범죄지도' 첫 공개…강서·구로 '살인·폭력', 강남·서초 '강도·마약' 많다](#)

경향신문_2021.08.25.

[나홀로 마약 쏟아지는데…국과수, 올 마약류 감정 7만여건 전망 '7년 새 2배'](#)

경향신문_2021.08.22.

[분기 가계빚 첫 1800조 돌파… 영끌-빚투에 생활고 겹친 탓](#)

동아일보_2021.08.22.

[카드론 땡겨쓰는 Z세대…사상 첫 1조 넘었다](#)

이데일리_2021.08.23.

[장애인 임직원 최다는 현대차…작년 기준 2천108명](#)

연합뉴스_2021.08.26.

["장애인 상대 성범죄 하루 평균 2.2건 발생"](#)

연합뉴스_2021.08.26.

경제

[코인 거래소, 보안성·실명계좌 확보 못해 줄폐업 우려](#)

중앙일보_2021.08.24.

[비싼 주식 사는 재미들… 오르면 바로 팔고, 하락땐 버티기"](#)

동아일보_2021.08.25.

[고령화 늪 빠진 韓제조업…한경연 "美보다 11배 빨리 늙어가"](#)

연합뉴스_2021.08.23.

부동산 / 자산양극화

[집 있으면 몇 달 새 벼락부자…집값 폭등에 “일을 왜 하는지”](#)

경향신문_2021.08.14.

['평균 30억' 상위 2%만 배불린 文정부 3년... '新 부동산 계급사회'로](#)

한국일보_2021.08.26.

[가계소득 역대 최대 감소…상위 20%만 소득 늘었다](#)

중앙일보_2021.08.24.

국제

[리버풀 축구장, 노마스크로 꽉 찼다...英 '위드 코로나' 이 장면](#)

중앙일보_2021.08.25.

[미국 내 아시아인 30년간 3배 증가...한인 150만명 거주](#)

연합뉴스_2021.08.22.

["북, 코로나·수해에 작년 소비자물가 17% ↑ ...농산물 123% 폭등"](#)

연합뉴스_2021.08.25.

['빈 라덴 사살' 깃발 들고 '20년 전쟁', 미군 12만 명 파병에 2조 달러 퍼부었지만 베트남전 판박이](#)

중앙일보_2021.08.24.

기후환경/트렌드

[세계 어린이 10억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한겨레_2021.08.23.

[미쉐린 스타셰프 요리까지, 안방서 즐긴다](#)

조선일보_2021.08.24.

이슈 큐레이션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한겨레21_2021.08.24.

넘버즈 칼럼

목회 양극화와 교인-목회자 간 인식 차이 심각

최상도 교수

(호남신학대학교/역사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를 개신교 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장 통합교단에서 2020년 5월에, 예장합동교단에서 11월에 각각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추적 조사를 이번에 시행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교회의 향후 목회자의 목회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목회자 조사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회 규모, 예산 증감, 연령에 따른 목회 양극화 현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는 출석 교인 수 감소로 이어졌고, 교회예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목회자 개인의 가족관계, 불안, 우울감, 스트레스, 고립감, 소외감 뿐만 아니라 목회에 직접 영향이 있는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예산의 변화와 교회 규모 요인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산의 증감에 따라 교육문제와 출석 교인 수 감소에 대한 목회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예배에 대한 태도는 작년 5월 조사에 비해 이번조사에서 현장 예배 고수의 비율이 월등히 감소했지만 목회자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대면 예배 방식에 양극화를 보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목회자는 코로나19 종식 후 현장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 작년 5월 조사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교인들은 주일 성수로 온라인 혹은 가정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66%나 되었다. 특히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에서 목회자는 주일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이 작년 5월과 이번 조사에서 모두 73%를 웃도는 데, 교인들은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코로나19 초기였던 작년 4월 조사 때보다 거의 10%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12월 조사보다 더 증가했다.

목회자는 코로나19 종식 후 현장 예배를,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인과 목회자간 예배 방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변화 예상에서도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회자들은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 출석 교인 수, 교회학교 학생 감소에 대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지만, 교인들은 교인 수 감소보다는 온라인 예배/콘텐츠의 활성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와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의 출석률 감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이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들의 교회 출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언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 변화 예상에서도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회자들은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 출석 교인 수, 교회학교 학생 감소에 대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지만, 교인들은 교인 수 감소보다는 온라인 예배/콘텐츠의 활성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회 양극화, 교인-목회자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교회 출석 교인 감소, 다음세대 교육과 관련된 주일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개별교회의 대처를 넘어 시찰, 노회, 총회 등을 통한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증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훈,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서재승, 이성진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